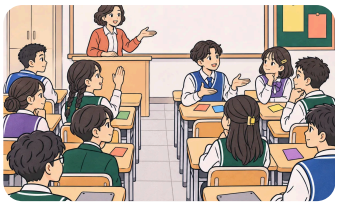
대인관계 중3 · 갈등 해결하기 · [9사회정서02-05] · 활동지

반	번호	이름	모둠

또래 갈등을 중재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방안 찾기

당사자 아닌 내가 중재자로 나설 때 무엇이 필요할까?



1 가운데에 끼었던 때

도입

이름과 사건은 쓰지 않아요. 떠오르지 않으면 우진이가 되어 써요.

그때 나는

편들기? 거리 두기? 말리기?

그 결과

어떻게 됐나

2 우진이의 5단계 말

이해하기

①②를 보고, ③④⑤ 단계에서 우진이가 할 말을 써요.

단계		우진이가 할 말
① 각자 이야기 듣기	→	**가은아, 네 이야기부터 끝까지 들을게.**
② 감정 인정하기	→	**같은 조가 못 돼서 서운했구나.**
	→	
	→	
	→	

중재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, 두 사람이 답을 찾게 돕는 사람이에요.



3 할 것 ○, 하지 않을 것 ×

연습하기

중재자가 할 것에 ○, 하지 않을 것에 ×를 쳐요.

끝까지 듣기 | 편들기 | 감정 알아주기 | 판단하기 | 조언하기 | 바람 묻기 | 대신 말해 주기 | 방법 함께 모으기 | 강요하기 | 잠깐 쉬기 | 선생님께 알리기 | 함께 정하기

가장 참기 어려울 것 같은 ×를 하나 고르고, 그 까닭을 써요.

4 내 중재자 원칙 3가지

적용하기

내 말로 써요. 모둠에서 나눈 뒤 공통 원칙 하나를 정해요.

우리 모둠 공통 원칙: _____

원칙 1
내 말로

원칙 2
내 말로

원칙 3
내 말로

✂ 잘라서 내요

5 내가 꺼낼 첫 한마디

정리

친구 둘 사이에서 내가 가장 먼저 꺼낼 말은 ‘ _____ ’이다.

새롭게 안 것
한 줄로

중재자의 한계
이럴 땐 어른에게

아직 두려운 것
솔직하게